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갈라디아서 2 주차 (갈 2:15~3:25)
(2015년 1월 4일 - 2015년 1월 10일)
(제 2권 2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2 권-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 월 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주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15~16)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원어해석하기

- (15절) 우리는 본질상 유대인이고 죄인들인 이방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ἡμεῖς φύσει Ἰουδαῖοι καὶ οὐκ ἐξ ἐθνῶν ἁμαρτωλοί.*)
-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εἰδότες [δὲ] ὅτι οὐ δικαιοῦται ἄνθρωπος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ἐὰν μ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왔습니다 (*καὶ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기 위하여
(*ἵνα δικαιωθῶμεν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καὶ οὐκ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ω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도권에 대한 논쟁,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사도바울은 급기야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곱그러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누구이든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 한발자국 더 들어가서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 절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유대인이고 죄인들인 이방인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면서 유대인은 본질상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만 죄인인 것처럼 들립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책망한 바로 직전 성경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지칭하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행위가 유대인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것 처럼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의인이다”라는 주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5 절에서 “죄인들인 이방인”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견해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서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타인들을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또는 가문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16 절을 읽으십시오. 16 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교차배열 구조(Chiasmic Structure)라 합니다. 성경을 서술할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문장구조입니다.

- A: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 B: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 C: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왔습니다**
- B':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 A':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가장 가운데 배치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 장 16 절에서 강조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자칭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위 문장 구조에서 A-A'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말씀 묵상

원래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구약성경의 율법들이나 신약성경의 수 많은 권면들을 마치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 성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에 하던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어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견해를 적어보세요.

B'B'를 보십시오. 여기서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은 마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실하신 행함을 통해 완성된 의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이행한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신실하신 행하심)이 어떻게 당신의 의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나 [월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17~21)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원어해석하기

- (17절)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애를 쓰다가
(εἰ δὲ ζητοῦντες δικαιωθῆναι ἐν Χριστῷ)
우리들 스스로가 죄인들로 발견되어 진다면 (εὐρέθημεν καὶ αὐτοὶ ἁμαρτωλοί.)
그리스도가 죄의 종입니까? (ἄρα Χριστὸς ἁμαρτίας διάκονος;)
결코 그럴 수 없습니라 (μὴ γένοιτο.)
- (18절) 왜냐하면 만약 내가 과거에 헐었던 것을 내가 지금 다시 세우고 있으면
(εἰ γὰρ ἄ κατέλυσα ταῦτα πάλιν οἰκοδομῶ.)
나 스스로가 나를 범법한 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παραβάτην ἑμαυτὸν συνιστάνω.)
- (19절)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ἐγὼ γὰρ διὰ νόμου νόμῳ ἀπέθανον.)
그결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ἵνα θεῷ ζήσ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습니다 (Χριστῷ συνεσταύρωμαι.)
- (20절) 나는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습니다 (ζῶ δὲ οὐκέτι ἐγώ.)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ζῆ δὲ ἐν ἐμοὶ Χριστός.)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ὁ δὲ νῦν ζῶ ἐν σαρκί.)
내가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ἐν πίστει ζῶ τῆ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τοῦ ἀγαπήσαντός με καὶ παραδόντος ἑαυτὸν ὑπὲρ ἑμοῦ.)
-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라 선언하지 않습니다 (Οὐκ ἄθετῶ τὴν χάριν τοῦ θεοῦ.)
만약 의로움이 율법을 통한 것이라면 (εἰ γὰρ διὰ νόμου δικαιοσύνη.)
그 때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ἄρα Χριστὸς δωρεὰν ἀπέθαν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또한 찬양곡으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미하는 바를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사실은 거의 매일, 너무도 자주]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홀로 있어도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이 안전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신은 왜 그런 일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니까?”라고 질문을 한 후 스스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느끼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죄들을 인식할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원문을 직역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과거에 헐었던 것을 내가 지금 다시 세우고 있으면 나 스스로가 나를 범법한 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누가 누구를 범법한 자로 증명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법한 자로 증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말씀의 의미를 음미해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7-18)

제자들의 말씀 묵상

19절을 읽으십시오. 19절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교차배열구조(Chiasitic Structure)가 발견됩니다. (참고로 한글 성경은 19절 뒷부분이 20절과 합쳐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것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A: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B: 그결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A':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습니다

19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B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면 어떤 단계입니까?(A-A'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는 것’=‘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것입니다.

20절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우리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상태를 자신의 말로 써 보십시오.

21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율법으로 의를 입증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당신은 다시 율법 도는 도덕적 행위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화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1~5)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찌더냐
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원어해석하기

-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ὦ ἀνόητοι Γαλάται,) 누가 당신들[의 눈]을 흘렸습니까? (τίς ὑμᾶς ἐβάσκανε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공개적으로 너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οἷς κατ' ὀφθαλμοὺς Ἰησοῦς Χριστὸς προεγράφη ἐσταυρωμένος;)
- (2절) 내가 당신들로부터 오직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τοῦτο μόνον θέλω μαθεῖν ἀφ' ὑμῶν·) 당신들이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부터 받았습니까?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τὸ πνεῦμα ἐλάβετε ἢ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
-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지금은 육체로 완성하려는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οὕτως ἀνόητοι ἐστε, ἐναρξάμενοι πνεύματι νῦν σαρκὶ ἐπιτελεῖσθε;)
- (4절) 당신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헛되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τοσαῦτα ἐπάθετε εἰκῆ;)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εἴ γε καὶ εἰκῆ.)
- (5절) 당신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ὁ οὖν ἐπιχορηγῶν ὑμῖν τὸ πνεῦμα καὶ ἐνεργῶν δυνάμεις ἐν ὑμῖν,) 율법의 행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부터입니까?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ἢ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연속되는 다섯 번의 수사적 질문들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독자들이 숨을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속사포처럼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모든 질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상대방을 고려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

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감정 상태를 생각하면서 다섯 번의 질문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을 적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유독 서로 대조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논증을 위해 서로 대비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령 vs. 육체
- 믿음 vs. 율법
- 들음 vs. 행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성자)(1절)
- 성령(2,3,5절)
- 성령을 주신 분(성부, 성자)(5절)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독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성령을 받았다(2절)
- 성령으로 시작하였다(3절)
- 성령을 주셨다(5절)

이같은 단어들과 개념들에 유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격앙된 어조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1절에서 독자들은 첫 번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아노에토스’(ἀνόητος)는 ‘무식한’, ‘무지몽매한’, ‘지식이 전혀 없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자무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사용하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토록 무시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말씀 묵상

1절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채 그대로 “전시되어” 계시는데도 눈이 흘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질책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면 십자가도 은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신은 복음을 100%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가 100%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다른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을 읽어 보십시오. “당신에게 온 성령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해서 얻은 일종의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런 댓가 없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온 것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과 자신의 경험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고민해 보십시오.)

3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4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쌓으려다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입니까?

5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도 노력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복과 저주 [수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6-10)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원어해석하기

- (6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습니다.
(Καθὼς Ἀβραὰμ ἐπίστευσεν τῷ θεῷ,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γινώσκετε ἄρα ὅτι οἱ ἐκ πίστεως, οὗτοι υἱοὶ εἰσιν Ἀβραάμ.)
- (8절) 하나님이 믿음으로부터 이방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보였습니다
(προῖδοῦσα δὲ ἡ γραφὴ ὅτι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ὶ τὰ ἔθνη ὁ θεός,)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προευηγγελίσαστο τῷ Ἀβραάμ)
“모든 이방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ὅτι ἐνευλογηθήσονται ἐν σοὶ πάντα τὰ ἔθνη·)
- (9절) 그 결과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ὥστε οἱ ἐκ πίστεως εὐλογοῦνται σὺν τῷ πιστῷ Ἀβραάμ.)
- (10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Ὅσοι γὰρ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εἰσίν, ὑπὸ κατάραν εἰσίν·)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γέγραπται γὰρ)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ὅτι ἐπικατάρατος πᾶς ὃς οὐκ ἐμμένει πᾶσιν τοῖς γεγραμμένοις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ῦ νόμου τοῦ ποιῆσαι αὐτά.)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확대되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도 절기도 모두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그룹에 속하게 되자 유대인들(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이같은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점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약 400년도 훨씬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הֵאֱמַן אֲבְרָהָם יְהוָה וַיַּחְשְׁבֵהוּ לְרִצְוֹן)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 ‘아멘’에는 동사의 용법상 개인의 의지적 행동이 아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히브리어 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믿게 한 그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7절로 9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세 절은 다음과 같이 교차배열구조(Chiastic Structure)로 되어 있습니다.

- A: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 B: 하나님이 믿음으로부터 이방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보였습니다.
- B’: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 A’: 그 결과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A-A’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믿는 사람들)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 아브라함의 아들들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아들들 = 이스라엘 백성으로 도식화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B-B’를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등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부터 이방을 의롭다 하심’ = ‘모든 민족이 네(아브라함)안에서 복을 받을 것’

제자들의 말씀 묵상

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라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기준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9절, 그리고 10절을 읽으십시오. 9절은 복, 10절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현재형입니다.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외견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 보다 오히려 더 완전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저주 받은 삶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초대 교회 당시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다른 형태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현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당신과 관련된 것들만 적어 보십시오. (예, 주일성수, 십일조, 금욕적인 삶 등등)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11~14)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1절)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ὅτι δὲ ἐν νόμῳ οὐδεὶς δικαιοῦται παρὰ τῷ θεῷ δῆλον.)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살게 될 것입니다
(ὅτι ὁ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 (12절)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ὁ δὲ νόμος οὐκ ἔστιν ἐκ πίστεως,)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 것입니다 (ἀλλ' ὁ ποιήσας αὐτὰ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Χριστὸς ἡμᾶς ἐξηγόρασεν ἐκ τῆς κατάρας τοῦ νόμου γενόμενος ὑπὲρ ἡμῶν κατάρα, 기록된바 (ὅτι γέγραπται.)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ἐπικατάρατος πᾶς ὁ κρεμάμενος ἐπὶ ξύλου,)
- (14절) 그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ἵνα εἰς τὰ ἔθνη ἡ εὐλογία τοῦ Ἀβραάμ γένηται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 결과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ἵνα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λάβωμεν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 아래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율법에 얽매어 율법의 노예가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하나님께 돌

아 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곳곳에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올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약속 즉,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없으면 새로운 약속이 없습니다. 억눌림이 없으면 해방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3 군데를 인용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롬 8:3 상)”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말의 근거로 하박국 2:4 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실체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인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히브리서 11 장 1 절을 좀더 원어에 알맞게 번역하면 “믿음은 되어질 것들의 본체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의 증거입니다”(Ἔστιν δὲ πίστις ἐλπίζομένων ὑπόστασις, πραγμάτων ἔλεγχος οὐ βλεπομένων.) 히브리서 12 장 2 절은 “믿음의 기초이시요 완성이신 예수님”(τὸν τῆς πίστεως ἀρχηγὸν καὶ τελειωτὴν Ἰησοῦν)라고 믿음을 정의 합니다. 결국 두 정의를 합치면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요 증거요 기초요 완성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에서 믿음은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거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말씀 묵상

12 절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행함으로써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바로 뒤이어 레위기 18 장 5 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 장 5 절 전체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은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누군가는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행하였을까요?

13 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의를 옷입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론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실제 삶의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가지 혜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그 혜택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약속과 은혜 [금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15~18)

15.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원어해석하기

- (15절) 형제들이여 (Ἀδελφοί,
내가 사람들[관례]을(를) 따라 말합니다 (κατὰ ἄνθρωπον λέγω·)
비록 사람부터 나온 것[언약]이라도 (ὁμως ἀνθρώπου)
아무 것도 제외되거나 더해지지 않고 유효하게 되어 왔습니다
(κεκυρωμένην διαθήκην οὐδεὶς ἀθετεῖ ἢ ἐπιδιατάσσεται.)
-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해진 것입니다
(τῷ δὲ Ἀβραὰμ ἐρρέθησαν αἱ ἐπαγγελίαι καὶ τῷ σπέρματι αὐτοῦ.
'씨들에게' 라고 말하여 지지 않았습디다 (οὐ λέγει· καὶ τοῖς σπέρμασιν,)
'많은 이들에게[한 것이 아닙니다] (ὡς ἐπὶ πολλῶν)
한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ἀλλ' ὡς ἐφ' ἑνός·)
'너의 씨에게' [라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καὶ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 ὅς ἐστιν Χριστός.)
- (17절)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τοῦτο δὲ λέγω·)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언약을 (διαθήκην προκεκυρωμένην ὑπὸ τοῦ θεοῦ)
사백삼십년 후에 온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ὁ μετὰ τετρακόσια καὶ τριάκοντα ἔτη γεγωνὸς νόμος οὐκ ἀκυροῖ)
그 결과 약속은 유효합니다 (εἰς τὸ καταργῆσαι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 (18절) 왜냐하면 만약 그 유업이 율법으로부터 나왔다면 (εἰ γὰρ ἐκ νόμου ἢ κληρονομία,)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οὐκέτι ἐξ ἐπαγγελίας·)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통해 은혜로 주셨습니다
(τῷ δὲ Ἀβραὰμ δι' ἐπαγγελίας κεχάρισται ὁ θεό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의 논증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한 약속이라도 그것이 한번 발효되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데 하물며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언약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언약은 무엇이며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진 율법은 또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통해 한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 대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관례를 따라 말한다고 전제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한 약속은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고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변경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정에 따라 자신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당신에 대한 심판을 종료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안심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불안한 구석이 남아 있습니까?(자신에게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16 절을 읽으십시오. 16 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야곱, 그리고 열두 아들,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국한된다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한(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언약의 씨가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였습니까? 이해하였다면 그것을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17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후에 온 율법이 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약속은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은 유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유효한 것과 당신의 신앙간에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말씀 묵상

첫 번째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그 언약은 유대인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마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언약이 당신에게 성취되었다면 당신이 이해하는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의 성취 과정에 당신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8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이 18 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약속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약속을 통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답은 하나입니다. 갈 3:16을 참조하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19~25)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원어해석하기

- (19절)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Τί οὖν ὁ νόμος;) 그것은 불법 때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τῶν παραβάσεων χάριν προσετέθη,) 약속되어진 씨가 오실 때까지 (ἄχρις οὗ ἔλθῃ τὸ σπέρμα ᾧ ἐπήγγελται,)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에 의해 명령된 것입니다 (διαταγείς δι' ἀγγέλων ἐν χειρὶ μεσίτου.)
- (20절) 중보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ὁ δὲ μεσίτης ἑνὸς οὐκ ἔστιν,) 그러나 하나님은 한분이십니다 (ὁ δὲ θεὸς εἷς ἔστιν.)
- (21절)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것인가요? (ὁ οὖν νόμος κατὰ τῶν ἐπαγγελιῶν [τοῦ θεοῦ];)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μὴ γένοιτο.) 왜냐하면 능히 살게 하도록 하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εἰ γὰρ ἐδόθη νόμος ὁ δυνάμενος ζῶποιῆσαι,) 사실은 의가 율법으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ὄντως ἐκ νόμου ἂν ἦν ἡ δικαιοσύνη.)
-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ἀλλὰ συνέκλεισεν ἡ γραφὴ τὰ πάντα ὑπὸ ἁμαρτία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ἵνα ἡ ἐπαγγελία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οθῇ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 (23절)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갇힌 채 율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Πρὸ τοῦ δὲ ἐλθεῖν τὴν πίστιν ὑπὸ νόμον ἐφρουρούμεθα συγκλειόμενοι)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εἰς τὴν μέλλουσαν πίστιν ἀποκαλυφθῆναι,)
- (24절) 결과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ὥστε ὁ νόμος παιδαγωγὸς ἡμῶν γέγονεν εἰς Χριστόν,)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ἵνα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ωθῶμεν·)
 (25절) 그러나 믿음이 왔기 때문에 (ἐλθούσης δὲ τῆς πίστεως)
 우리는 더 이상 모학선생아래 있지 않습니다 (οὐκέτι ὑπὸ παιδαγωγόν ἐσμ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떠한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선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은혜만 유일한 길 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호해 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의 본문을 통해 둘다 모두 진리이고 둘다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19절과 2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었다 면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해서 후손들에게 주었느냐? 라는 반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주어서 사람들만 힘들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아주 간단하고 단호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로마서 3:20 절을 참고하십시오).

21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 약속에 반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의 답을 적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능히 살게하도록 하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사실은 의가 그 율법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롬 7:12~13).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죄인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을 죄인들로 만드셨을까요?

제자들의 말씀 묵상

22 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아래 가두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죄아래가 두어 놓으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죄아래 가두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로마서 3:19 절을 참고하세요)

23 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어디서:

어떤 상태로:

24 절과 25 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굴레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여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율법아래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 갇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간혀 있어야 풀려 날 것 아닌가요?) 그러다면 당신이 율법아래서 자유가속박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풀려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감정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